

# 리블리 벗고 킬러 길복순

31일 공개 넷플 영화 '길복순' 전도연

청부살인업계 전설적인 킬러 딸 키우는 엄마 '이중생활' 그려 '업계 대표'역 설경구와 호흡 "액션 위해 몸 부서져라 연습"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젠 꼭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배우 전도연이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으로 정통 액션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1일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길복순' 제작보고회에서 "(액션 연기가) 되게 무섭고 두려웠다"면서도 "해냈을 때의 쾌감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사실 마음은 날아다니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싶어서 몸이 좀 고장 나더라도 쉬지 않고 저를 채찍질하면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긴 해요."

오는 31일 공개 예정인 '길복순'은 청부살인업계의 전설적인 킬러 길복순(전도연 분)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길복순은 밖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킬러지만 집에서는 사춘기 딸과 씨름하는 평범한 엄마다.

전도연은 "제 직업이 킬러는 아니지만 아이 엄마와 배우로서의 삶,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큰 이질감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작품은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2016)과 '킹메이커' (2021)를 연출한 변성현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다.

작품 구성 단계부터 전도연을 염두에 뒀었다는



변 감독은 "필모그래피에 액션 영화가 크게 없었다"며 "그래서 장르부터 액션으로 정하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회상했다.

"엄마 전도연과 배우 전도연의 간극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직업과 죽이는 직업, 그러니까 배우를 킬러로 치환하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죠."

변 감독도 액션이 주가 되는 작품을 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출연 배우들이 액션 연기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고맙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며 "촬영 감독님처럼 '다시는 액션 영화 찍지 마시다'라고 얘기도 했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

'길복순'에는 설경구를 비롯해 김시아, 이숨, 구교환 등이 출연한다. 설경구는 청부살인업계 최고 기업 MK엔터 대표 차민규를, 이숨은 그의 동생 차민희를 연기했다. 김시아는 길복순의 딸

길재영 역을, 구교환은 길복순의 동료이자 후배인 한희성 역을 맡았다.

설경구는 "차민규는 길복순을 17살에 처음 만나 스승이 되고 멘토 역할을 하는 구원자 같은 캐릭터"라며 "이 영화가 액션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저는 멜로로 더 접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불한당', '킹메이커'에 이어 변성현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가 변성현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비경쟁 섹션 스페셜 부문에 초청받기도 했다.

전도연은 "(베를린영화제가) 처음이었다"며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극장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곳곳 돌며 힐링합니다”

이만기 KBS '동네 한 바퀴' 진행...“시골스런 다정함이 내 장점”

“아 어머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직도 너무 어색해요. (웃음) 전임자였던 김영철 선생님이 워낙 다정다감하셔서 제가 갑자기 '어 무이 여데 가십니까' 할 수도 없고...”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카페에서 만난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동네 한 바퀴' 진행자 이만기는 “시골스런 친근한 다정함이 저만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동네 한 바퀴'는 유명 관광 명소 대신 구도심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을 탐방하며 동네 사람들의 정겨운 삶의 풍경을 담아내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천하장사 출신 방송인 이만기는 3년 8개월간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배우 김영철의 뒤를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진행을 맡고 있다.

이만기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확 뒤집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김영철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하려다 보니 어색해 죽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김영철 선생님은 점잖으시고, 도시다운 다정함이 있는데 저는 친근한, 시골스러운 다정함 쪽이거든요. 되도록 가까이서 주민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덕담을 건네고, 구수한 입담으로 대화를 이끄는 이만기에게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전남 보성의 한 어르신은 운영 중인 목공소에 불이 났을 때 동네 아이들이 저금통을 털어 돈을 모아줬다는 사연을, 광주 광산구의 한 전방집 사장님은 아내를 잃고 견뎌내야 했던 외로움과 슬픔을 털어놓는다.

이만기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많은 분을 만나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에 위로도 받고, 존경스



러운 모습에 감동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선수 시절 때도 전국의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헛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골목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껏 제가 다녔던 그런 길들과는 전혀 다른 동네의 길을 걷게 되죠.”

이만기는 최근 KBS 공영방송 50주년 기념 해외 특집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 위치한 재외 교포들의 동네를 찾아 떠나기도 했다.

그는 “교민 분들이 타지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지만, 국민들의 저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방문한 브라질의 한인타운 봉헤지로는 브라질 여성 의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류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고 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차를 몰고 촬영 지역에 하루 일찍 도착해 동네를 돌아본다는 이만기는 매주 이틀씩 집을 비워 가족이 허전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요즘은 왜 안 나가느냐고 묻는 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 ‘경찰 콤비’로 만난 권상우-김희원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한강’

배우 권상우와 김희원이 한강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는 한강경찰대 콤비로 호흡을 맞춘다.

디즈니+는 올해 하반기 권상우-김희원 주연의 오리지널 드라마 ‘한강’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강’은 한강을 지키는 한강경찰대가, 한강을 둘러싼 범죄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권상우는 정의감 넘치는 다혈질 한강경찰대 한두진 역을, 김희원은 한두진과 정반대 성향을 가진 동료 이준석 역을 맡았다.

권상우와 김희원이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는 건 영화 ‘신의 한 수: 귀수편’ (20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강 경찰대원으로는 배우 배다희와 신현성이 함께하며, 이상이는 극에 긴장감을 더하는 인물



권상우

김희원

인 고기색을 연기한다.

제작진은 “휴식을 안겨주는 한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강경찰대 모습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강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선시대 열녀, 2023년으로 타임 슬립

드라마 ‘열녀박씨...’ 이세영 주연

MBC는 올해 하반기 방송 예정인 새 금토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에 배우 이세영(사진)을 캐스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은 조선시대 열녀 박연우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박연우는 혼례 첫날밤 괴한에게 납치당해 우물에 던져진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눈을 뜬 박연우는 사별한 남편과 이름은 물론 얼굴이 똑같은 남자 강태하를 만나 계약결혼을 하게 된다.

MBC 드라마 ‘자체 발광 오피스’ (2017), ‘내 뒤에 테리우스’ (2018) 등의 박상훈 PD와 TV조선 ‘아내 스캔들-바람이 분다’ (2014)의 고남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